

교회소식

1. 오늘 오후 예배는 2015년 직분자 헌신예배입니다.
2. 오늘 2부 예배 후 제직회 모입니다.
3. 다음주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모입니다.(담임목사 은퇴권)
4.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월 19일(월)~26일(월)
5.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남희중, 곽복님, 김점숙

※교회 기도제목

1.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3.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4. 캄보디아 단기의료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공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6여전도회	여17, 18목장	제7여전도회	각 목장별로	수요일 오전10:00	목요일 오전 10:3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1월 행사

- 1일 : 당회원 부부 신년기도회 • 4일 : 신년주일, 신일비전헌신예배,공동의회(예,결산 심의 결정)
- 9일 : 목장연합예배(오후 8시, 본당) • 11일 : 각 기관 월례회
- 18일 : 2015년 직분자 헌신예배(제직세미나) • 19~26일 : 캄보디아 단기 의료선교 • 25일 : 정기당회

◆ 1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곽복님, 정영주

◆ 1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소재역, 이진석, 주정주, 하문숙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소	전화	소속기관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 11시 설교 안 주 모 목사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19장(구44장)
새266장(구200장)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기 도 1부/우성한 장로
2부/박근용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베드로후서 3:14~18(신 P387)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자라가는 신앙

기 도 설교자

찬 송 새354장(구394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안재경 장로
2부 / 남동균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2015년 직분자 헌신예배

오후 3시 인도 남 동 균 장로
설교 안 주 모 목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조성철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디모데전서 1:12~17(신 P338)

찬 양 연합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교회 직분자의 자세

헌 금 새320장(구350장) ... 다같이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이성중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정 기 훈 강도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새258장(구190장) 다같이

기 도 최윤자 권사

성경말씀 인도자

출애굽기 20:8~11(구 P112)

말씀선포 설교자

기억하여 지키라

목장찬양 여 17, 18 목장

주기도문 다같이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남1, 2 목장

✚ 다음주 기도 / 성영옥 권사

Since. 1978

No 1. 2015. 1. 18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1.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2.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3.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4.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교회를 섬기는 분◆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영준
강 도 사 정기훈
전 도 사 김금분
장 로 김제곤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강일창
찬양지휘 이옥영 송명남 김신혜 윤현덕
반 주 김빛나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조성일
의 악 윤현덕 김성옥 남정아 안소연 윤혜진 정은지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 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 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 등 부 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1.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터넛방송, 필리핀 추수신학교/오일환, 인도구르자트/전미숙
- 2. 미자립교회 :**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뽐엘교회/창원 군인교회
- 3. 학 원 선 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 이성은, 김지효
- 4. 기 관 선 교 :** 극동방송국/대전, 유달생드롭인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5. 문 서 선 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김대윤, 노시래(구남량), 박근용(최윤자), 박남수, 박상임, 박순국(조수정), 박우연, 신동명(강경숙), 안경환(송명남), 안주모(조양순), 유진하, 윤성욱(김신혜), 이성은(박선옥), 이성은(정), 이성자, 이영일(홍은미), 이윤희(최길자), 장재화(김덕연), 전민규, 조남년, 함동수(곽정자), 무영

✦ 감사헌금

강철원(이지영), 김금보, 김나경, 김명권(정영주), 김예림, 김예은,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남용민, 박근용(최윤자), 박상임, 박석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은정, 박진우(김혜정), 박현희, 박해진, 성형건(윤송화), 소재익(김미화), 신동명(강경숙), 심희숙,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안진형, 안홍준, 오민욱, 오승엽(김영희), 원용국(김복금), 윤성욱(김신혜), 이성자, 이인호(장지혜), 이태곤(엄검지), 정기훈(최연옥), 정영철, 정옥근(이경미), 정은지, 정재민, 최영준(한은정), 최효찬, 한영실, 함동수(곽정자), 무영

✦ 선교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철원(이지영), 김영순, 김영필(심남희), 노시래(구남량), 박상임, 박영숙A, 이영일(홍은미), 이태곤(엄검지), 전민규, 정옥근(이경미), 정재수(김정희), 조남년

✦ 신년감사헌금

남영순, 이재익(김애숙), 전민규

✦ 장악헌금

신동명(강경숙), 정옥근(이경미)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김건국(김성욱, 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안스디자민, 안영원(영인, 혜린), 안재경,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화), 이태곤(엄검지), 장은숙(안소연, 진형, 진성), 정옥근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조남년

목장현황

2015.1.9.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2	15,000	2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1	3,00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3	11,000	6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1	8,000	52	교 회
남2초원	3 김제곤	교 회	3	12,000		교 회	여4초원	7 곽복남	교 회	3	12,000	27	교 회
	4 김명권	교 회	3	10,000		교 회		8 성영욱	교 회	1	10,000	2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2	10,000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3	9,000	7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2	10,000	3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2	10,000	15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2	5,00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2	8,000	10	교 회
	8 소재익	교 회	3	15,000	10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120	교 회
남5초원	9 이진석	교 회	1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5	13,000	84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1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4	10,00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4	17,000	15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2	5,000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2,000	10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3	10,000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6,000	339	교 회	여9초원	17 김혜정	교 회	1	5,00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5	15,000	200	교 회		18 엄검지	교 회	3	5,000	25	교 회

금주의 말씀

자라가는 신앙

베드로후서 3:14~18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박해가 밀려오자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가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은혜”가 뭔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호의 또는 사랑을 말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미망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선한 행동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대의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신앙은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바울사도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애도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합니다. 언제부터 자라났고 했습니까? 복음 듣고 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하나님 사랑이 놀랍구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나, 참 놀랍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를 맺고 너희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교회 나오는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니 한 오백년 교회 나와도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신앙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 하였습니다. 신앙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주실, 분을 어떤 단어로 이 구절에서 묘사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자기 백성을 저지르 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책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의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책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1왕 2산지자 3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였을 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 다.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베드로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기 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교만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말년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이다.” 베드로가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을 봅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득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나와.”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맙시다. 예수님을 부리진 않 알아가십시오. 베드로가 함께 무슨 단어를 강조했습니까? 알아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이다” 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제각기 빛을 뽐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noch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는 누구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신에 대하여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영광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게만 사용하며, 하나님은 실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셨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여러 곳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나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